

홀트소식

SUMMER 2025 — VOL.217



홀트소식

www.holt.or.kr



여름이야기

이번 여름호 표지에는 싱그러운 포도송이를 함께 바라보는 한부모와 아이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고 큰 사랑으로 걷는 한부모들의 모습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봅니다. (관련기사 4~7쪽)



Contents

한부모가족 특집 한부모가족복지

- 04 ① 아이와 나,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
- 08 ② 함께 키우고 함께 성장한 10년
- 10 ③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삶에 닿는 변화의 시작
- 12 ④ 단단하게 똑똑하게, 함께 걸어난 자립의 길

아동·청소년복지

- 14 ① 시설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 17 ② 기후위기를 그리는 작은 손

장애인복지

- 20 ① 장애인의 활기찬 여가활동, 계절 스포츠
- 23 ② 장애인들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봄나들이 현장

지역사회복지

- 26 ① 고독의 그림자를 넘어서는 여정, '마음여행'
- 29 ②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따뜻한 변화 'TMI 라이프'

국제개발협력

- 32 내 손으로 만든 기회

캠페인

- 34 불길 속에서 사라진 하람이의 기억

나눔스토리

- 36 ① 지란지교패밀리와 함께한 특별한 힐링나눔
- 38 ② 삼성SDS 임직원, 장애인들에게 자연 속 소중한 추억 선사
- 40 ③ 탁보늬와 함께하는 버스킹 280
- 42 ④ 행복의 원동력 사랑으로 가족을 지키다
- 44 ⑤ 한부모가족과 자립준비청년의 행복을 지키는 마음으로

- 46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김정오(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사

정용근(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희(홀트아동복지회 전국후원회장 역임)
 박경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스티브 모리슨(한국입양홍보회 이사)
 유희정(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
 최재성(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성일(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

감사

정재훈(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오윤숙(정헌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본부

02-331-7000

지부

부산지부 051-468-4576
 대구지부 053-756-0183
 충청지부 042-586-1983
 인천지부 032-424-0145

산하시설

홀트일산복지타운 031-914-6632
 홀트일산요양원 031-914-6633
 홀트보호작업장 031-914-6629
 고양보호작업장 031-929-149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홀트강동복지관 02-2251-6100
 고양시재활스포츠허브 031-929-1500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031-914-6635
 홀트학교 031-915-2913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051-760-3600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053-563-1007
 인천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032-424-0145
 대구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053-756-0183
 대전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042-586-1983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424-1391
 인천검암아동보호전문기관 032-277-1391
 홀트미추홀 032-548-1601
 홀트어린이집 031-217-0437
 하남시립은방울어린이집 031-790-297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침뜰 042-585-3004
 고운뜰 031-216-9004
 아름뜰 02-334-4614
 대구클로버 053-654-0181
 대전클로버 042-583-4006
 광주클로버 062-361-5900

국제개발협력

홀트 해외사업장 02-331-7040
 (몽골, 캄보디아, 네팔, 탄자니아)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후원자님, 지구와 자연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 주세요.

'종이 소식지' 대신 문자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수산'으로 환경을 보호해 주세요.
 자원을 아끼는 마음들이 모인다면, 더 나은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식지 수산 전환 방법 : 후원자 상담센터(02-331-7073~7076)로 연락 주세요.

통권 217호(계간) 발행일 2025년 7월 25일 발행인 김정오 편집인 신미숙
 발행처 나눔사업본부 홍보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홈페이지 www.holt.or.kr
 후원문의 02-331-7073~6
 후원계좌 KB국민은행 479037-01-000461 홀트아동복지회
 좋은 사연 좋은 제언 pr@holt.or.kr 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이들의 어려움은 조명받기 어렵고, 때로는 사회적 편견 속에 놓입니다. 이에 홀트아동복지회는 기관 산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한부모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삶과 도전,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자 합니다.

글 홍보팀 정진숙·아침뜰 김미연·아름뜰 전보현·광주클로버 한경희

아이와 나,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



한부모가족 특집 ❶

혼자가 아닌 함께, 세상에 전하는 엄마의 목소리!



아름뜰(김서현)

※ 일부 이미지는 한부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얼굴로 처리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적절한 양육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 한부모들이 양육과 자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전국 6곳(아침뜰·고운뜰·아름뜰·대구클로버·대전클로버·광주클로버)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업 소개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 **저는요...** ”

이미령(가명, 31세, 아침뜰) 저는 올해 대전의 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한, 다섯 살 아들을 키우는 엄마예요. 원래 2년 넘게 간호조무사로 일했는데 혼자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 공무원처럼 보수나 근무 시간이 안정적인 보건직 간호사로 전향해야겠다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죠.

김유리(가명, 29세, 광주클로버) 저도 다섯 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처음엔 공동생활이 너무 낯설어서 입소를 거절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지금은 ‘청소의 여신’으로 불릴 만큼 잘 적응했답니다. 요즘엔 간호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김서현(가명, 39세, 아름뜰) 저는 일곱 살 딸을 둔 엄마고요. 아이가 7개월쯤 됐을 때 고민 끝에 아이와 단둘이 살 생각으로 아름뜰에 들어왔어요. 가족들 때문에 생긴 빚에다 아이까지 생기면서 모든 게 무너졌지만, 지금은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저는 네일 아티스트를 꿈꾸며 배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 **시설에 들어오던 날이 지금도 기억나요** ”

김유리 스물네 살에 아이 아빠를 만나 결혼했지만, 외도와 폭력으로 두 해 만에 끝났어요. 친권은 아이 아빠에게 돌아갔고 저는 양육권만 간신히 얻었죠. 지인의 도움으로 전남 나주로 내려와 기초생활수급비와 분식집 아르바이트로 아이를 키우다가 점점 벼랑 끝에 몰려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고,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아이를 일



광주클로버(김유리)

시보호시설에 맡겼습니다. 그 후 아동보호 전담 요원과 꾸준한 상담을 거쳐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광주클로버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미령 저는 부모님이 출산을 반대하셔서 아기 돌 때까지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처음엔 출산만 지원해주는 1차 시설에 있다가, 장기 거주 시설을 알게 되어 1년 뒤에 아침뜰에 입소했죠. 그때까진 정말 모든 게 막막했어요. 도움받을 곳이 전혀 없었거든요.

김서현 저도 비슷했어요. 무작정 인터넷에 ‘미혼모시설’을 검색하다가 아름뜰을 알게 됐어요. 특히 눈에 띈 건 돌잔치를 해주는 사진이었어요. 아이 백일 사진도 못 찍어줘서 돌잔치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아름뜰의 양육 환경이나 자립 지원제도를 보니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전화로 상담 받고 용기 내서 입소했어요.

“ **이곳에서의 삶을 통해 단단해지고 있어요** ”

이미령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험이 아기를 돌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 하려다 보니 놓치는 게 많았어요. 아이가 아플 때마다 어쩔 줄 몰라서 전전긍긍했는데, 선생님들이 양육에 대해 조언해주시고 실제로 도와주니 한결 마음이 놓였어요. 그럴 때마다 ‘나에게도 믿을 구석이 하나는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김유리 예전엔 하루하루 버티기 바빴는데, 지금은 간호사

자격증 취득이라는 목표가 생겼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아이도 언어치료와 감각통합치료를 병행하면서 조금씩 상태가 나아지고 있어요. 아이가 입원했을 때 선생님들이 간병 교대까지 해주셔서 ‘아,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김서현 무엇보다 제가 짊어졌던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경제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해주시고 아이를 낳기 전부터 있었던 우울증도 좋아질 수 있도록 상담해주셔서 제 숨통이 트였어요. 또 아이 돌보는 데 필요한 정보나 집안일 같은 생활 꿀팁도 많이 배웠고요. 이곳에 와서 삶이 달라졌어요.

“ **양육과 생활을 병행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은...** ”

김유리 아픈 아이를 약만 챙겨 어린이집에 보냈던 날이에요. 그날은 단체주문 예약이 잡힌 날이라 분식집에 꼭 나가야 했거든요. 일당이 끊기면 생활 자체가 무너질 상황이었어요.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고, 그날 밤 너무 힘들어 포기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시고 지칠 때마다 할 수 있다고 용기 주시고, 조용히 옆에서 말 걸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위로가 돼요.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려요.”



아침뜰(이미령)

이미령 아기가 16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일도 육아도 모두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자신을 몰아세워 많이 지쳐 있었고 몸도 마음도 컨트롤이 안 돼 힘들었어요. 그때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김서현 저는 공동생활의 스트레스가 가장 컸어요. 하지만 늘 곁에서 챙겨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다른 엄마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순간들이 많았기에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엄마로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이미령 아기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요. ‘우리 아이가 이제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놀랍고도 기뻐요.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몰랐을 기분이잖아요. 아이가 워낙 순해서 엄마가 공부하러 가도 울거나 떼를 안 써서 짠하기도 해요.

김유리 가장 기쁜 순간은 아들이 저를 보고 웃으며 달려올 때예요. 짧은 순간이지만 아이의 웃음 속에 저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그 한순간이면 모든 고생이 씻은 듯이 사라져요. 엄마로서 ‘우리 아기에게 더 잘해줘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뜰(이미령)

김서현 아이에게 해줄 수 없었던 것들을 해줄 때 정말 기뻐요. 돌잔치와 아이와의 여행 그리고 무료 나눔이나 중고 대신 좋은 제품의 새 옷과 새 장난감을 사줄 수 있을 때 가장 기뻐요.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김유리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 아프면 또 못 나오겠네”, “혼자 애를 어떻게 돌보냐?”라는 말을 쉽게 하죠. 그럴 땐 정말 자존감이 무너져요. 우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데 말이죠. 아이와 살아가기 위해 각자의 방식대로 노력하고 있으니 따뜻한 시선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미령 맞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아이가 있는 엄마예요”라고 하면 제일 먼저 “아빠는요?” 아니면 “결혼하셨어요?”라고 물어요. 저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대답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져요. 처음엔 그런 질문에 상처 받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억척스러운 아줌마’로 살기로 했거든요.



광주클로버(김유리)

김서현 사실 저도 입소 전에는 한부모에 대해 선입견이 있었어요. 막상 제가 겪고 보니,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죠. 제 생각이 가벼웠다고 반성했어요. 한부모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부모라는 걸 기억해주셨으면 해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은?**”

이미령 아이와 둘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큰 꿈이에요. 우리 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처럼 티 없이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꼭 가고 싶은 직장에 취업해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길 바라요. 한부모가족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유리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직은 그 과정 중에 있지만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김서현 저는 혼자였을 때보다 아이가 태어나고 기쁜 일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작은 가게를 열고 싶습니다.

“**한부모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이미령 눈앞에 닥친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의 희망을 품어보세요. 삶의 기준을 아이에게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도 살아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저도 오늘 하루만 견디자는 마음으로 살다가 미래를 바라보고 대학에 도전했는데 희망이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도전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김유리 저처럼 ‘실상’에 대한 편견이 있는 한부모들이 많을 거예요. 낮은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괜히 눈치 보이고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에 망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요.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꼭 받으라고요. 여러분은 혼자 아니에요. 손을 내밀면 도와줄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자신감을 가지세요.

김서현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남편과 살 때 행복하지 않았지만 아이 생각해서 참았는데 다행히 그 고민에서 빨리 벗어난 덕분에 자립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렵고 막막하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분명 달라진 내일이 찾아올 거예요. 스스로를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길 응원해요.



아름뜰(김서현)



아름뜰(김서현)

한부모가족 특집 ②

홀트한부모지원센터 10주년, 한부모가족과 동행한 발자취

함께 키우고 함께 성장한 10년

1972년, 미혼모상담 사업을 시작하고 1973년, 전국 최초로 미혼모상담센터를 설립한 홀트아동복지회는 우리 사회의 돌봄 사각지대를 채우며 복지의 길을 열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을 비전으로 한부모가족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한부모지원센터를 설립하며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글 한부모지원센터 유호정



똑똑한엄마 사업보고회



HOLT공유공방 정규클래스

2022

자립을 향한 도전,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

2022년, 센터는 자립을 핵심 가치로 삼고 새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교육훈련을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지는 '똑똑한엄마', 베이킹·수공예·가족공예로 기술 습득이 가능한 HOLT공유공방 '가치만들'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힘을 길러주는 구체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024

미래로 나아가는 힘 - 위기지원부터 창업까지

2024년,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시작된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출산과 돌봄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이자 저출산 대응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부모가족 자녀로 구성된 해외자원봉사단 'DREAM-TEENS'는 청소년 세대까지 아우르는 포용형 복지의 실천이며, 2025년 새롭게 시작된 '창업학교'는 자립의 최종 목표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창업학교 개강식



2015

체계적인 복지의 시작, 한부모지원센터의 문을 열다

2015년, 홀트아동복지회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목표로 미혼한부모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후 자립, 주거, 돌봄, 심리 등 한부모가족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본격적인 복지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캥거루스토어', 매월 양육비를 지원하는 '곳곳한엄마' 자조모임, 주거 지원, 맞춤형 양육물품 지원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캥거루스토어 인천점 개소식



곳곳한엄마



2018

더 넓게, 더 촘촘하게 - 기업 협력과 서비스 확장

2018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의 폭을 더욱 넓혀갔습니다. KB손해보험과의 파트너십으로 추진된 '365베이비케어키트', '365키즈키트'는 영유아부터 학령기 아동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물품을 제공하여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롯데그룹과 함께한 'MOM'S FESTA 플라마켓'은 한부모에게 경제적 자립 기회 제공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장으로 성장했으며, 다양한 '맞춤형 프로젝트'를 통해 더 넓게, 더 촘촘하게 사업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MOM'S FESTA 플라마켓



2025

앞으로도 함께, 따뜻한 변화를 향해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한부모가족과 함께 성장하며 든든한 이웃이 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든든한 울타리이자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년도, 함께 키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자원봉사단 'DREAM-TEENS'

한부모가족 특집 ③

인천·대구·대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역할과 '언팩데이'로 열린 공감의 시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삶에 닿는 변화의 시작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공간과 사업을 소개하는 '언팩데이' 행사 장면

지난 3월 문을 연 인천, 대구, 대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이하 상담소)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지역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설립한 전문 복지기관입니다. 인천, 대구, 대전 상담소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상담소의 공간 공개 및 사업 소개의 날인 '언팩데이' 행사를 통해 상담소의 기능과 역할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글 대구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김은혜



생애주기별로 함께하는 상담소의 역할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한부모가족이 삶의 시기마다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신·출산기에는 출산 준비물 지원, 양육기에는 기저귀와 의류 등 생필품 지원, 교육·자립기에는 학업과 진로 지원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며, 자조모임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사회 안에서 고립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가능성을 펼친 '언팩데이' 현장

'언팩데이'는 상담소의 공간과 사업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행사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홀트아동복지회의 '똑똑한 엄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부모가 직접 강사로 나서 수공예 제작 체험을 진행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더불어 한부모가 참여한 플라마켓에서는 자립을 위한 제품이 소개되었고,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 캠페인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을 통해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여정을 응원하며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도모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이 가족의 형태로 존중받고, 당연한 사회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존재 이유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지역과 함께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족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정성과 전문성을 다하겠습니다.



한부모 강사가 진행한 '수공예 제작 체험'



플라마켓에 선보인 한부모셀러의 수공예품

한부모 참가 후기



“누군가 나에게 집중해주는 시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만든 제품을 소개하고, 체험 강의까지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수공예 체험 한부모 강사



“점점 더 제 일에 자부심이 생기고 있어요. 직접 만든 물건을 소개하고, 참여자들이 제작업을 함께 경험해보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플라마켓 한부모셀러

한부모가족복지 ④

지난 5월 17일,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 '단단한부모-똑똑한 엄마'의 사업보고회와 토크콘서트 '단단하게, 똑똑하게 함께 걸어온 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립의 토대를 다져온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여정을 되돌아보고 서로의 성장에 박수를 보내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글 한부모지원센터 김하은

한부모가족 특집 ④

'단단한부모-똑똑한 엄마' 사업보고회와 토크콘서트 현장 이야기

단단하게 똑똑하게, 함께 걸어온 자립의 길



사업성과 보고회 발표 장면



자립 기반을 튼튼히 다질 재무교육 특강

증을 취득하고 창업을 준비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등 구체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단단한부모-똑똑한 엄마'를 통해 지원받은 교육·훈련 경험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이전에는 막막하기만 했던 미래가, 지금은 조금씩 구체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함께 나누다

토크콘서트 '단단하게, 똑똑하게 함께 걸어온 길'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4명의 한부모가 무대에 올라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기술 자격 5종을 취득한 도전의 여정, 필라테스를 배우며 아이와 함께 생기를 되찾은 일상, 다른 사람을 돕고 웃게 만드는 일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경험 그리고 "교육을 통해 성장한 우리 엄마가 자랑스럽다"라는 자녀의 소감까지... 교육 성과뿐만 아니라 삶을 다시 꺾어낸 성장과 자립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토크콘서트가 진행되는 동안 객석에서는 박수와 응원이 쏟아졌고, 함께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진한 감동과 따뜻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단단한부모-똑똑한 엄마'는 단순한 교육·훈련 지원을 넘어서 한부모가 자신의 가능성을 다시 믿고,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연결의 장이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자립을 시도한 참여자들의 여정은 함께 걸어온 시간이었다고 또 함께 이룬 변화였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혼자가 아닌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자립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자립의 기본, 돈을 배우다

이번 사업보고회는 참여자의 자립 기반을 더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재무교육 특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내 생의 처음 시작하는 재무설계'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의에서는 가계 경제 관리법, 소비습관 점검, 미래 설계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나눴습니다. 참여자들은 이번 특강을 통해 자립의 기초가 되는 돈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움과 도전, 나를 다시 세우다

2024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이어진 '단단한부모-똑똑한 엄마' 사업에 참여한 한부모들은 수공예, 푸드, 미용, 운동, 기술자격, 학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재능에 맞는 교육 과정을 선택해 자력



사업보고회 참여자 단체사진

※ 일부 이미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얼굴로 처리했습니다.

성장하고 자립을 돌아보는 토크콘서트





드림플러스 오리엔테이션

시설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시설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사업 오리엔테이션 현장

홀트아동복지회는 2018년부터 시설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자립 계획을 마련하고, 그 과정을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립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00여 명의 참여자들이 선발되어, 꿈을 위한 도전을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사업별 오리엔테이션 현장을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앞으로도 시설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의 완전한 자립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글 아동복지팀 박지연·백솔·이재영



런런 챌린지 오리엔테이션에서 강연 중인 자이언제이 탐리더스 위원



런런 챌린지 오리엔테이션



위드유 커뮤니티 오리엔테이션

시설청소년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2025년 3월 29일 토요일, 홀트아동복지회 강당에서는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이하 파랑새)' 8기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파랑새 사업과 오랜 인연을 맺은 강도현 명예멘토와 김성민 명예멘토가 참여했는데, 자립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명예멘토의 응원에 화답하듯, 파랑새 멘티들의 미래를 향한 당찬 포부까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2025년 파랑새 사업에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심리정서 멘토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상담 기관인 '대교에듀캠프 드림멘토 상담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파랑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멘티들은 심리정서 전문가와 1:1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소와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서 자신을 알아가며 불안감을 해소할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립준비청년 대학생들 통합 지원사업 드림플러스

2025년 2월, 자립준비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드림플러스' 4기가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드림플러스는 대학생들, 생활 안정, 교육 및 집단활동 등을 지원하며, 올해는 총 27명의 장학생과 함께합니다. 지난 2월 20일, 드림플러스 4기의 시작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드림플러스 후원처인 한국스파이렉스사코의 김현정 이사과 드림플러스 3기 개인 후원자 김진영 님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특별히 김진영 후원자는 '도전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청년들에게 용기와 열정을 전하며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드림플러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별한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몽골 해외봉사활동 '드림하이'입니다. 자립준비청년 대학생들이 홀트의 해외사업장을 방문해 나눔을 실천하고, 다양한 문화와 삶을 직접 경험하게 될 이번 활동은 참여자들에게 값진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도전에 응원과 따뜻한 관심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립준비청년 취·창업역량강화 지원사업 런런 챌린지

2025년 3월 8일 토요일, 홀트아동복지회 강당에서는 '런런 챌린지' 5기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4기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만난 반가운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Don't Be Fooled!(속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탐리더스인 자이언제이 위원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특강 이후, 런런 챌린지 자조모임 동아리를 편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DISC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매칭이 이루어져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 새로운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립을 위한 역량과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지원사업 위드유 커뮤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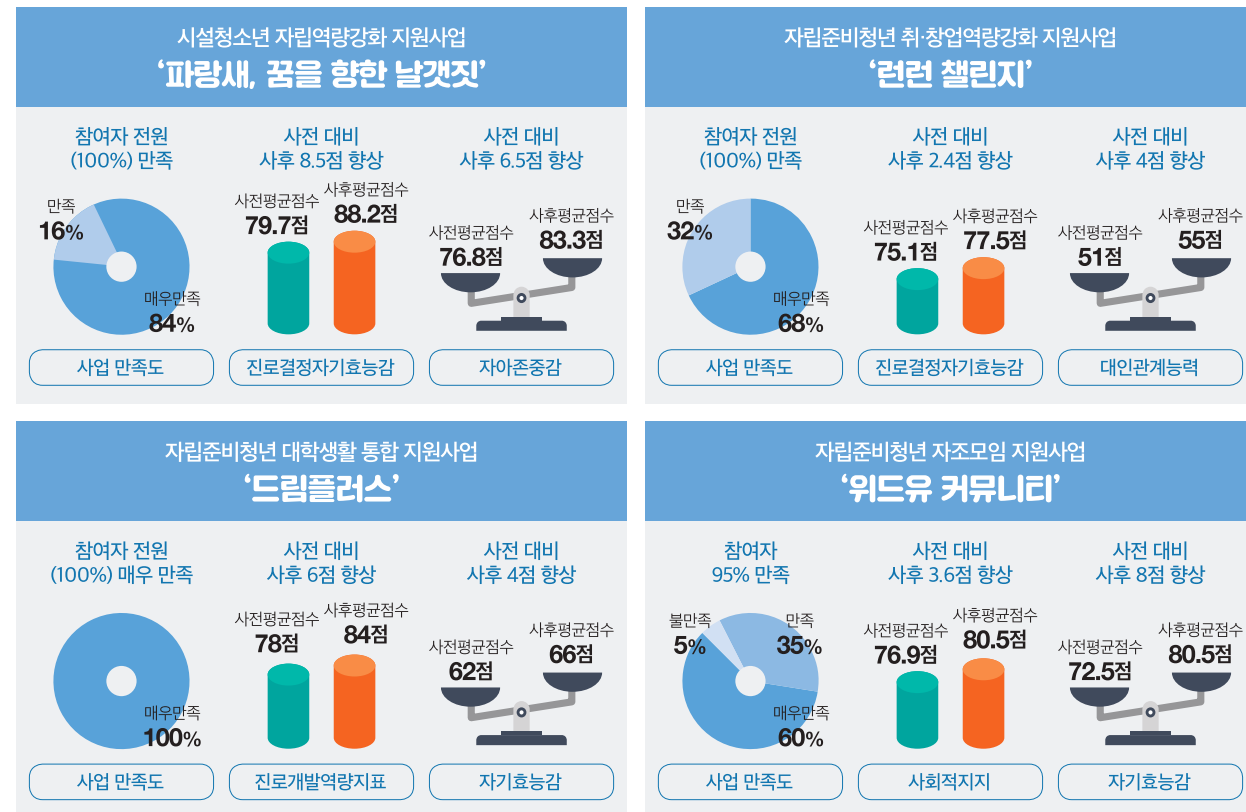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홀트아동복지회 강당에서는 '위드유 커뮤니티(이하 위드유)' 3기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위드유는 세방이의순재단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자조모임 활동 및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위드유 3기의 첫 활동으로 본 사업을 소개하고 이후 의사소통 교육, 동아리 구성 및 활동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아리 구성은 심리상담 전문가인 김가희 강사와 함께 의사소통 방식 및 행동 유형검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행동 유형의 사람들이 만나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기대되는 위드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올해는 위드유 이전 참여자들과 함께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장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앞으로 위드유 커뮤니티 3기의 프로젝트 활동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2024년 함께 남긴 발자국을 되돌아보며

2024년 시설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립 지원사업 성과보고

홀트아동복지회는 2018년부터 시설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그 과정을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립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2024년의 사업 결과를 공개합니다.

글 아동복지팀



<p>나에게 런런 챌린지는 <input type="text"/>이다</p> <p>나에게 런런 챌린지는 '바다의 이정표 등대 같은 존재'다.</p> <p>나에게 런런 챌린지는 '인생의 동반자'다.</p> <p>나에게 런런 챌린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p> <p>나에게 런런 챌린지는 '튼튼한 지반'이다.</p> <p>나에게 런런 챌린지는 '타닝포인트'다.</p>	<p>나에게 드림플러스는 <input type="text"/>이다</p> <p>나에게 드림플러스는 '등불'이다.</p> <p>나에게 드림플러스는 '발전'이다.</p> <p>나에게 드림플러스는 '성장의 기반'이다.</p> <p>나에게 드림플러스는 '나무의 성장 요소인 양분'이다.</p> <p>나에게 드림플러스는 '가족'이다.</p>	<p>나에게 위드유 커뮤니티는 <input type="text"/>이다</p> <p>나에게 위드유 커뮤니티는 '함께의 미학'이다.</p> <p>나에게 위드유 커뮤니티는 'owned(나의 소유)'다.</p> <p>나에게 위드유 커뮤니티는 '새로운 시도'다.</p> 
--	---	--



시상식 단체사진

기후위기를 그리는 작은 손

기후위기 속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그림공모전 '홀트, 세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기후위기 속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홀트, 세움' 그림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의 시선에서 기후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권리를 지키고 싶은지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기회였습니다. 아동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 빛나는 아이디어로 가득했던 '홀트, 세움'의 성과를 돌아봅니다.

글 아동복지팀 배지수



함영서(저학년-대상)



최지율(고학년-최우수)



김선우(저학년-최우수)

그림으로 말해요, 아이들의 기후위기 SOS

‘기후위기 속에서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천 행동’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서 전국의 초등학생들은 그림을 통해 저마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이들은 달라진 계절, 탁한 공기, 쓰레기로 뒤덮인 바다를 보며 느꼈던 불안과 걱정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동물과 사람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비닐봉지 대신 가방을 사용하겠습니다!”와 같은 다짐들은 보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은 단순한 창작을 넘어,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필요한 노력을 전하는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아이들은 일상에서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봄과 가을은 너무 짧아 그 계절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세상이 매년과 미세먼지로 가득 차서 숨 쉬기가 힘들어요” 등 진심 어린 문장이 그림 속에 담겼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물, 안전한 환경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숨 쉬고 자라기 위한 기본 조건이자, 태어나면서부터 보장받아야 할 ‘생존권’입니다.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지키고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는 ‘보호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뛰놀고 계절 변화를 온전히 느끼며 감성과 지식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아이들의 ‘발달권’을 실현하는 토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참여권’이 실현됩니다. 아이들의 그림 속에는 이처럼 아동의 4대 권리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웹툰으로 만나는 아동권리와 지구 이야기

공모전 접수와 함께 진행된 웹툰 콘텐츠는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림 응모에 그치지 않고, 아동과 시민 모두가 기후위기와 아동권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홀트아동복지회 명예멘토 공씨 작가의 재능기부로 제작된 아동권리 웹툰은 아이들에게 기후위기와 아동권리를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웹툰을 본 아이들은 기후위기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천 행동을 댓글로 남기는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웹툰을 보면

서 그동안 제가 분리수거를 안 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코드를 뽑지 않는 등 지구를 아프게 했던 행동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저는 매우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 있고,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아이들은 기후위기 때문에 시시각각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와 같은 진솔한 다짐들이 이어졌습니다.

공정한 심사, 감동의 시상식

그림 공모전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품들을 대상으로 ‘홀트, 세움’ 홈페이지에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심사가 이어졌습니다. 약 360명의 심사자가 아이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심사평을 남겨 아이들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습니다. 3차 전문가 심사에는 서울교육대학교 미술영재원 원장 정연현 교수와 홀트아동복지회 명예멘토 공씨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응모작 중 13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작은 ‘홀트, 세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전시회로 누구나 감상할 수 있게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월, 홀트아동복지회 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되었고, 응원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대상 1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최우수상 2명에게는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상, 우수상 4명과 장려상 6명에게는 홀트아동복지회 회장상과 장학금이 수여되었습니다. 특히 대상 수상자는 장학금 전액을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하여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응답해야 할 시간

‘홀트, 세움’ 공모전은 아이들의 목소리로 시작되었지만, 어른들의 동참으로 완성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느낀 기후위기의 위협 속에서도 함께 노력하자고 말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 그 미래는 아이들만이 아닌,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해결책보다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실천입니다.



장애인의 활기찬 여가활동,

계절 스포츠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연간 '사회적응훈련 캠프'

사람들은 여행, 캠핑, 등산 등 여러 활동으로 계절을 즐기지만 거주시설 장애인들에게는 접근성과 안전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간단한 외출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은 거주시설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절별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의 사회적응 활동을 통해 계절을 품은 우리의 추억을 공유합니다.

글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노진희

겨울을 만끽하며 설원을 달리는 눈썰매

한겨울의 찬바람과 설원을 느끼기 위해 약 15명의 거주 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김포사계절썰매장에서 눈썰매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김포사계절썰매장은 넓은 휴게실과 휠체어 안전 슬로프가 잘 정비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눈썰매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해 장애인과 1:1 매칭하여 눈썰매를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오랜만의 외출에 외식과 간식도 즐기고 겨울바람을 맞으며 눈썰매를 타는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함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참가자 전원이 '매우 만족'했다고 응답해 눈썰매는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의 대표적인 겨울 활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겨울 스포츠의 꽃 스키, 100% 즐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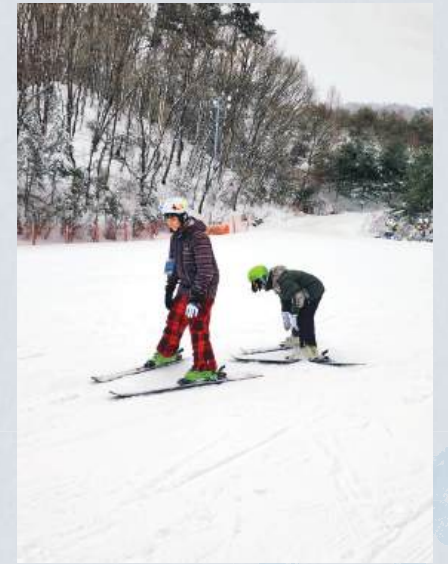
겨울 스포츠의 백미는 단연 스키입니다. 새하얀 눈밭을 빠른 속도로 질주하며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짜릿함은 물론, 전신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 효과도 뛰어납니다. 스키 캠프는 겨울 방학을 맞이한 장애 학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스키 강습뿐만 아니라 스키장이라는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며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비장애인들과 어울리며 사회통합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스키 장비 이해, 착용법, 안전

하게 넘어지는 법, 기본자세로 활강하기 등 체계적인 강습을 통해 참가자들은 짧은 기간에도 알차게 스키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의 여름 BIG 이벤트, '침범침범 홀트워터파크'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이용자들이 1년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계절은 바로 여름입니다. 넓은 수영장이 5일 동안 워터파크로 변신하기 때문입니다.

홀트워터파크는 10mX10m 규모의 풀 2개와 대형 에어슬라이드가 설치되어 웬만한 실내 수영장보다 뛰어난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하루 세 타임씩 총 5일간 진행되는 워터파크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매 타임 체육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상주하여 함께 물놀이 활동에



슬로프를 가르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스키 캠프



설원 위에서 펼쳐진 신나는 눈썰매 캠프



홀트워터파크에서 물놀이 활동 참가자 단체사진



홀트워터파크에서 즐거운 물놀이 활동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은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제공하고, 더불어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며 사회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합니다. 물놀이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담임목사 신종철) 후원으로 다양한 간식도 제공되어 놀거리와 먹거리를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매년 약 150명이 이용하며 무더운 여름의 땀방울을 식혀주는 최고의 이벤트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는 실내스포츠, 볼링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한여름에는 야외 활동이 어려운 만큼 실내 스포츠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볼링 특강을 진행합니다. 볼링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스포츠로,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가 늘어나 반을 증설하여 운영해야 할 만큼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원한 실내지만 무거운 볼을 핀에 맞추려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핀이 쓰러지는 소리에 성취감도 두 배가 됩니다.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은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제공하고, 더불어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며 사회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많은 시도와 노력이 필요한 만큼, 우리 체육관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복지 사업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름 실내 스포츠 활동 볼링 특강

장애인복지 ②



용문산에 활짝 핀 '꽃보다 청춘' 참가자들! 싱그러운 자연 속, 웃음꽃 만발한 단체사진

장애인들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봄나들이 현장

홀트강동복지관

5월 '가정의 달' 맞이 나들이 행사

햇살 가득 따뜻한 봄날, 홀트강동복지관에서는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싱그러움, 웃음꽃이 활짝 피었던 5월의 아름다운 순간들. 그 따뜻했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글 홀트강동복지관 신승훈



한강공원에서 멋진 포즈로 찰칵!

**홀트강동대학 5월 문화여가체험 봄 내음 가득,
신나는 볼링도 한판~**

따뜻한 봄 내음이 가득했던 5월, 홀트강동대학 학생들과 함께 한강공원 나들이와 볼링 체험을 다녀왔습니다. 홀트강동대학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활동 경험과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격월로 문화여가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험은 홀트강동대학 학생회에서 직접 회의를 통해 기획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는데요. 가고 싶은 장소를 함께 정하고, 주변 맛집과 즐길 거리까지 꼼꼼히 준비하며 스스로 만드는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는 푸른 자연 속을 함께 걷고, 서로 사진도 찍어주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으로는 맛있는 돈가스를 즐기고, 하루의 마무리는 볼링장에서 신나게 스트라이크에 도전하며 모두가 웃음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함께 즐길 이번 문화여가체험 나들이는 학생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경험과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홀트강동대학 볼링 체험

**가정의 달맞이 '애플 나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들기**

어린 시절 부모님과 손잡고 떠났던 놀이동산의 소중한 추억. 그 행복했던 순간을 다시 한번 선물하고자 5월 가정의 달 기념 가족 나들이로 롯데월드에서 다녀왔습니다. 애플 나들이는 '애플(사랑 애)'와 '+ (플러스)'를 합친 이름으로 나들이를 통해 가족 간 사랑과 정이 깊어지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즐거운 추억을 쌓으며 더욱 돈독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족과 함께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기며 즐거움을 만끽하고, 다양한 체험공간을 둘러보며 행복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부터 부모까지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포토존에서 가족사진을 남기며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사진 속 밝은 미소처럼 이번 나들이가 가족들에게 봄처럼 따뜻한 추억으로 오래도록 남길 기대합니다.

**홀트강동복지관은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인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플 나들이' 놀이기구 체험



한강공원 꽃밭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낸 홀트강동대학 문화여가체험 참가자들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꽃보다 청춘' 가족과 함께한
청춘 나들이**

"아~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청춘 감성 가득한 중장년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함께 봄 내음 가득한 용문산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중장년 발달장애인 가족 나들이 '꽃보다 청춘'은 38세 이상 중장년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나들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여가 체험과 가족 관계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나들이는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테마 여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천년고찰 용문사와 웅장한 은행나무를 감상하고, 푸르른 숲길을 산책하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자연의 맛이 담긴 산채정식으로 오붓한 식사를 즐기며, 가족 간 정을

나눴습니다. 봄 햇살만큼 환한 미소가 가득했던 하루, '꽃보다 청춘' 나들이로 모두가 소중한 추억을 쌓고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 홀트강동복지관의 약속

홀트강동복지관은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인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웃고 즐기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 소중한 시간이, 장애인들의 삶에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홀트강동복지관은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봉종합사회
복지관



지역주민 정신건강
사례관리 프로그램
'마음여기서행복'

고독의 그림자를 넘어서는 여정, 마음여행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에 주목하여, 해운대구 반송2동 주민의 우울감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사례관리 프로그램인 '마음여기서행복(이하 마음여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마음여행'은 음악치료,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주민의 긍정적인 감정 사례관리로 구성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고독감을 해소하고 삶의 희망을 찾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글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장원준



노래에 맞춰 핸드드림 치기

행복한 나의 모습 상상하며 가면 꾸미기

'헬로송' 노래에 맞춰 율동하는 모습



“우울증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음여행'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을 정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어르신의 일기장에 적힌 한 줄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의 고독을 '자연스러운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고독과 고립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우울은 과연 같은 말일까요?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 위치한 해운대구 반송2동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빈곤한 경제 상태에서 비롯된 심리적 위축감, 자신감 저하,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는 마음여행은 이제 복지관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꽃이름으로 별명 짓기



공감의 씨앗이 자라다

음악치료사는 옛 가요들을 들려주며, 참여자 각자에게 가장 마음에 남는 노래를 떠올려보게 했습니다. 방 모 어르신이 떠올린 곡은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이었고, 이 노래만 들으면 엄마 생각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위는 조용해졌고, 참여자들은 각자의 부모님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후 핸드벨과 우쿨렐레 같은 간단한 악기를 연주하며 '고장 난 벽시계', '고향의 봄'을 함께 불렀고 웃음도 늘었습니다. 노래 한 곡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기억과 감정이 흘러나왔습니다. 김 모 어르신은 “예전엔 혼자 흥얼거리기만 했는데, 이렇게 같이 부르니 좋네요”라며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옛 노래로 참여자들은 회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 일부 이미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얼굴로 처리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따뜻한 변화

TMI 라이프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르신과 디지털 세상의 따뜻한 연결을 위한 특별한 여정, 'TMI 라이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역조직화사업 'TMI 라이프'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망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느덧 4년째 이어지고 있는 'TMI 라이프',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글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김태훈

홀트수영종합사회
복지관



어르신과 함께한
4년간의
특별한 여정



디지털 체험의 시작, 지역 명소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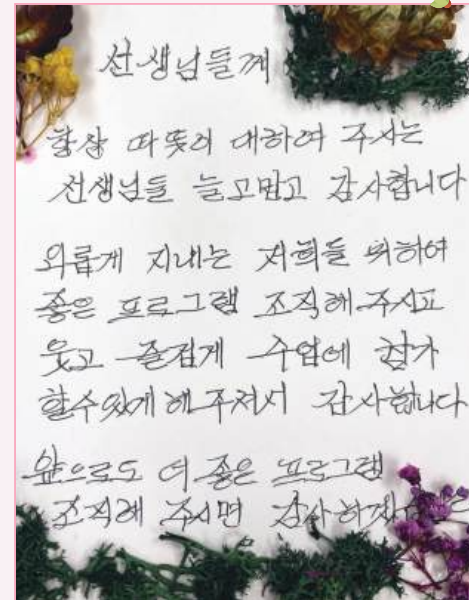
꽃받침을 하며 서로의 꽃이름 외우기

내 마음에도 봄이 오다

마음여행 프로그램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어느 날, 최모 어르신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대인관계도 이렇다 할 게 없었는데, 마음여행에 참여하고 나서 나 자신이 즐거워요. 머릿속에 생각도 많았는데 이제는 생각하지 말자, 잊어버리자, 그냥 좋은 생각만 갖자 그렇게 생각하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마음여행을 통해 조금씩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고 삶의 변화를 체감해 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늦은 계절은 없다

참여자들에게 마음여행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긴 침묵 속에 묵혀 있던 감정을 꺼내고, 다시 누군가와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연결을 원하고, 마음은 돌봄과 공감의 통해 회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여행은 조용한 회복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참여자들은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의 행복을 찾아가는 이 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마운 사람에게'라는 편지 내용 중



키오스크 체험활동



자원봉사자 교육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사회적 관계망 회복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소통, 정보 습득, 일상생활의 필수 도구가 되었지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은 점점 사회와 단절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디지털 교육은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은 물론, 사회적 관계망 회복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2022년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첫발을 내디딘 'TMI (Touching, Media Information) 라이프' 사업은 2023년 민락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협업을 거쳐 2024년부터는 수영구청의 든든한 지원 아래 2025년까지 이어지며 어르신들이 디지털 세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더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나아가 질병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대면 참여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1:1 방문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와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소중한 첫걸음, '자원봉사자 교육'

TMI 라이프는 자원봉사자 기본소양 교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사업의 취지와 활동 목적을 전달받고 어르신들을 대할 때 필요한 존중하는 태도와 활동 시 유의사항 등을 익히며 봉사자로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사전 교육은 봉사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어르신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동반자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고, 사업 수행력과 책임감을 기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1 맞춤형 스마트폰 교육', 디지털 일상의 시작

TMI 라이프의 대표 활동인 1:1 맞춤형 스마트폰 교육은 어르신과 자원봉사자가 1:1로 짝을 이루어 진행됩니다. 전화번호 저장하기, 문자 보내기, 사진 촬영하기 등 기본 기능부터 카카오톡 활용, 온라인 주문, 캘린더로 일정 관리하기, 앱 설치하기까지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도움 없이 연락처도 저장하고, 카카오톡으로 멀리 있는 자식들과 안부도 나눌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 깜빡하는 일이 많은데, 스마트폰에 일정을 저장해두면 알림이 와서 참 좋아요” 등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생생한 이야기는 스마트폰이 단순한 기계를 넘어 세상과 연결되는 소통의 창구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함께해서 더 즐거운, '집단 미디어 체험활동'

이제는 일상에서 익숙한 기기가 된 키오스크,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낯설고 때로는 다가가기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TMI 라이프는 “처음 보는 기계 때문에 새로운 장소에 가는 게 꺼려져요”라는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고 실제 카페나 음식점에서 주문부터 계산까지 직접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

니다. 서로 도우며 웃고, 작은 성공을 함께 축하하는 경험은 어르신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친구가 되어가는 어르신들의 모습 속에서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따뜻한 순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 '평가회'

사업을 마무리하는 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평가회가 열렸습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접할 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일상 속 즐거움과 자신감으로 채워진 어르신들의 변화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낯설지 않고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처음엔 부끄럽고 걱정도 많았는데, 스마트폰을 배우면서 세상 구경도 많이 하게 되고, 답답했던 마음도 시원해진 것 같아요”라는 어르신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는 변화와 성장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디지털 드로잉 체험활동



어르신들이 디지털 소외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TMI 라이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과 어르신들의 열정적인 노력에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따뜻한 동행 부탁드립니다!

참여자 단체사진



내 손으로 만든 기회

지속가능한 자립을 향한 홀트아동복지회 해외사업장의 현지화



홀트아동복지회는 2011년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몽골, 네팔, 탄자니아에서 해외사업장을 운영하며, 각 국가의 고유한 사회적 맥락과 요구에 맞춘 ‘현지화(Localization)’ 접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지화’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수원국(원조를 받는 국가)의 정부, 시민사회, 민간 조직 등이 개발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원을 이양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방적인 외부 지원을 넘어, 현지 스스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전략입니다.*

글 국제개발협력팀 이소민



네팔 - 여성의 자립이 가정과 지역을 바꾸다

네팔에서는 2024년 4월부터 네팔 NGO Slisha와 함께 랄리트푸르 지역에서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WAWCAS(Women at Work Children at School, 엄마는 일터로, 아이는 학교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

소 추천을 받은 27명의 여성이 16개월간 직업교육을 이수한 후, 각각 3만루피(한화 약 30만원)의 창업자금을 받아 다양한 소규모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활동을 넘어서 가정 위생 개선, 가정폭력 감소, 남성의 가사 참여 증가, 아동 체벌 감소

*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과 로컬라이제이션: 이론적 변천과 실천적 적용(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Localisation: Theoretical Evolu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s)』,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6권 제3호 (2024), 1-18쪽.



등 긍정적인 사회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여성들은 식당, 채소가게, 화장품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눈에 띄는 소득 증가를 경험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 경제적 자립이 삶의 변화를 만든다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의 빈곤지역 케코-므왕가에 위치한 탄자니아 NGO WISE(Women in Social Entrepreneurship)는 홀트아동복지회의 지원을 받아 여성 경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참여자 중 다섯 자녀를 둔 싱글맘 살로메 피터 씨는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 기술, 재무 관리, 음식·비누 제조 등을 배워 현재 하루 약 2만실링(한화 약 1만원)의 수익을 내며 경제적 자립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단칸방을 마련했고, 앞으로 집 확장과 오토바이 구매도 계획 중입니다. WISE는 지난 3년간 25명의 싱글맘을 지원했으며, 교육뿐 아니라 금융기관 연결, 멘토링, 코칭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유는 존엄성과 목소리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믿음 아래, 홀트아동복지회는 이 변화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The Guardian> 2024.3.8. 기사 발췌)

1·2 네팔 WAWCAS 참여자

3 탄자니아 단체사진

4 탄자니아 <The Guardian> 기사

현지 중심의 국제개발, 그 지속가능한 여정

홀트아동복지회는 단순한 물질 지원을 넘어, 각국의 파트너 기관과 함께 현지 주도형 개발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뿐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마을, 지역사회의 자립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는 현지 중심의 국제개발 협력사업으로 지역사회 스스로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불길 속에서 사라진 하람이의 기억

아픔을 딛고 하람이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불길이 삼켜버린 하람이의 집

안동을 휩쓴 산불이 8살 하람이(가명)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이 삼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참혹한 현장을 하람이는 고스란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하람이의 마음에도 큰불이 났습니다. 단 한 벌의 옷도, 한 장의 이불도 챙기지 못한 채 불길을 피해 도망쳐야 했던 하람이 가족은 현재 인근 교회 한편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습니다. 난방조차 되지 않는 공간에서 하람이와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늘도 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어디서 살아?”

어린 하람이가 의지할 곳은 오직 할머니와 할아버지뿐인데, 두 분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할머니는 뇌출혈을 앓은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렵고, 할아버지는 심한 허리 디스크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무너진 집보다 더 무너진 것은 하람이의 일상이었습니다.

절망 속에도 일어나려 애쓰는 하람이와 조부모님

하람이 할머니는 소규모 농사와 노점상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왔지만, 산불로 인해 모든 삶의 기반을 잃었습니다.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고 있던 터라 집



과 생업까지 모두 잃은 상황에서 병든 몸으로는 회복의 여지조차 찾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하람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도 아이만큼은 지키려 버티고 있습니다.

아픔을 딛고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산불이 할린 상처보다 큰 아픔이 하람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람이는 요즘 말수가 부쩍 줄고 매일 밤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당장의 생계도 걱정이지만 하람이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더 걱정입니다. 집이 불에 타고 무너지는 순간을 눈앞에서 지켜보며 큰 충격을 받은 하람이. 의사 선생님은 하람이에게 마음을 어루만져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픔을 딛고 하람이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글 나농기획팀 이예림

위기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이 절실합니다.

하람이 후원하기



※ 본 캠페인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가명 및 대역 촬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란지교패밀리 임직원 참여 '사내 안마 기부 캠페인'

지란지교패밀리와 함께한 특별한 힐링나눔

지난 2025년 2월부터 지란지교패밀리 임직원들은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특별한 방법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내 안마 기부 캠페인'을 통해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일상 속 짧은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보고,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힘을 보태는 일거양득의 따뜻한 나눔 활동으로 안마받고 기부도 하는 임직원 참여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글 나눔기획팀 이예림

일상 속 휴식이 나눔으로

'사내 안마 기부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사내에 설치된 안마의자(1,000원) 또는 전문 안마사 케어(3,000원) 서비스를 이용한 후, 각 이용 금액을 QR 코드를 통해 홀트아동복지회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은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안전하게 아기를 출산하고, 아기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기 속 엄마와 아기를 위한 응원

갑작스러운 임신, 출산 후 양육 부담, 보호체계의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에게는 누군가의 작은 응원이 절실합니다. 지란지교패밀리 임직원들은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짧은 순간을 통해 새 생명을 지키고 임산부들이 엄마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눔이 일상이 되는 기업문화

지란지교패밀리 임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덕분에,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사내 복지를 넘어 '나눔의 일상화'를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란지교패밀리의 따뜻한 마음과 실천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 지란지교패밀리 임직원들은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짧은 순간을 통해 새 생명을 지키고 임산부들이 엄마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

삼성SDS 임직원, 장애인들에게 자연 속 소중한 추억 선사

장애인의 날 맞아 딸기농장 나들이, 따뜻한 나눔 실천

지난 4월 15일,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삼성SDS 임직원들이 홀트아동복지회 산하의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인 홀트일산복지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딸기농장으로 나들이를 떠나,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자연 속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일상적 외부활동이 제한된 장애인들에게 직접 딸기를 수확하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만끽하는 체험은 단순한 외출을 넘어, 서로 이해하고 깊이 교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 순간들을 소개합니다.

글 나눔기획팀장 옥지희



장애인들을 위해 딸기농장 나들이 봉사에 참여한 삼성SDS 임직원들



딸기농장 체험 내내 따뜻한 말과 미소를 함께했습니다^^



삼성SDS 임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손을 잡고 이동을 도왔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느낀 하루

삼성SDS 임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손을 잡고 이동을 도왔으며, 체험 내내 따뜻한 말과 미소로 함께했습니다. 활동 후에는 정성껏 준비된 저녁 특식을 제공하며 하루의 즐거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일상의 작은 나눔이 이렇게 따뜻한 울림을 줄지 몰랐다"며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진심이 오가는 경험에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연결된 마음, 계속되는 동행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따뜻한 손길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는 기업과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나눔의 가치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실천이 우리 사회를 더욱 밝게 만드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활동 후에는 정성껏 준비된 저녁 특식을 제공하며 하루의 즐거움을 마무리했습니다!



위기임산부에게 전한 희망의 선율 탁보니와 함께하는 버스킹 280

위기임산부와 아기를 지키기 위해 펼쳐진
감동의 작은 음악회 &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에 감미로운 바이올린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홀트아동복지회가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음악회, '탁보니와 함께하는 버스킹 280(이하 버스킹 280)'의 두 번째 무대였습니다. 쇼핑과 가족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 모두 음악에 귀 기울이며 나눔의 순간을 함께했던 이날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글 임팩트기금팀 황태우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이루어진 탁보니 님의 '버스킹 280' 공연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캠페인 관련 굿즈

280일, 소중한 생명을 위한 따뜻한 기다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클래식 크로스오버 바이올리니스트 탁보니 님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기를 지켜낸 위기임산부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연주회는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기념하고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 캠페인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의 숫자 '280'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평균 임신 기간을 뜻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이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려는 위기임산부와 태어날 아기들을 응원하고, 필요한 도움을 전하고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눔으로 지켜내는 위기임산부와 아기

'버스킹 280' 현장은 탁보니 님의 감미로운 바이올린 연주가 울려 퍼지며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았고 관객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캠페인의 의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280일을 상징하는 2,800원의 기부는 작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 많은 분들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세상에는 말하지 못할 어려움 속에서도 아기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위기임산부들이 있습니다. 또 태어나자마자 보호가 필요한 아기들도 존재합니다. 이번 '버스킹 280'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존재에 대해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80일, 그 시간 동안에는 누군가의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2,800원, 작은 나눔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주는 희망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위기임산부가 아기를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양육 물품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엄마와 아기를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한 아기의 내일을 지켜줍니다.

280 캠페인 참여하기



행복의 원동력 사랑으로 가족을 지키다

가족의 사랑으로 피워낸 임일석·방은아 탐리더스 위원의 희망 이야기

지난 2월, 고액후원자 탐리더스로 위촉된 임일석·방은아 부부 위원은 홀트아동복지회를 대표하는 후원 가족입니다.

2016년, 국내결연아동 2명의 후원을 시작으로 현재 26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유산을 기부해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는 ‘드림플러스’ 사업의 첫 시작에도 함께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소중한 가족을 지키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희망을 전하는 두 위원님의 나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글 임팩트기금팀장 권혜란



홀트아동복지회 탐리더스에 위촉된 임일석·방은아 위원



방은아 위원의 부모님 고(故) 방태석(오른쪽)·조지자 후원자(아랫줄 가운데)가 함께한 가족사진



임일석·방은아 위원 가족의 화목한 한때

결연아동을 통한 기쁨의 열매를 맺다

방은아 위원은 “광고대행사 디웨이브를 창업한 후 신규 거래처가 늘어날 때마다 국내 결연아동 후원을 위한 지정 기부를 늘려가는 것을 회사의 사회적 기여 목표로 삼았습니다. 2016년 12월, 단 2명의 아동 후원으로 시작했는데, 사무실의 인테리어용 나무에 결연아동 사진을 하나씩 걸면서, 마치 열매가 열리듯 후원아동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뿌듯하고 기뻐요”라며 나눔이 곧 성장의 기쁨이자 일상의 보람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이어 “직원들도 기부 취지를 공감하고, 더 열정적으로 일해주었어요. 좋은 뜻은 함께 나누어야 행동력이 더 커지고 사랑의 열매가 무르익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입니다.



6년 전 막내 하율이 돌잔치에서

가족의 사랑으로 시작된 대학생 자립준비청년 지원

임일석·방은아 위원을 통해 사랑은 생명의 힘이자, 더 좋은 변화로 이끄는 행복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위원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자 가족의 울타리 안과 밖으로 자신이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가정을 찾아주는 일’을 통해 양부모님을 만난 방은아 위원은 부모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헌신’ 덕분에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잘 자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에는 부모님의 별세 후 남겨진 재산 중 5,000만원을 부모님의 뜻인 ‘어려운 환경으로 교육의 기회가 제한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홀트아동복지회에 후원했습니다. 이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과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드림플러스’ 사업의 마중물이 되었고, 현재 이 사업은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랑과 경제적 이윤을 흘려보내는 삶

“고액후원자라는 타이틀이 과연 저희에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기부하며 누적 기부금액이 1억 원이 되었지만, 이건 우리 가족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흘려보내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라고 겸손의 말을 전하는 방은아 위원은 위기가정아동과 자립준비청년, 한부모와 장

애인, 그리고 지역주민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홀트아동복지회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가치 있는 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행복한 가족의 조건은 ‘존중’과 ‘믿음’

임일석·방은아 위원은 세 자녀를 키우는 다둥이 부모로서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가치를 깊이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행복한 가족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가족이 행복해지려면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건강하게 이어지려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믿어주는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전합니다.

이어 기부에 대해 자녀들에게 특별히 말한 적은 없지만, “나중에 엄마, 아빠를 기억할 때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이들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따뜻하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어른이 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삶을 닮아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위원님의 고백이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을 향해 “현재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꾸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생각과 태도를 바꾸면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뀝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두 힘내세요!”라는 따뜻한 응원을 전해 주신 임일석·방은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부모가족과 자립준비청년의

행복을 지키는 마음으로

지난 4월 1일,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조소영, 조명주 후원자의 기부금 및 후원물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후원물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곳에 전달되어 아기 양육과 생활에 필요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조소영 후원자의 나눔 실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글 나눔지원팀 권소현

‘나는 SOLO’ 영자, 나눔으로 이어진 감동 스토리

SBS Plus-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 22기 ‘영자’로 대중에게 알려진 조소영 후원자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첫 결혼은 신혼 이혼으로 끝이 났고, 그 이후로는 오롯이 제 일에만 몰두하며 지냈죠. 그러다 문득, 더 늦기 전에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조소영 후원자의 용기 있는 고백과 진정성 있는 모습은 시청자뿐만 아니라 같은 기수에 출연했던 배우자 ‘광수’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고, 두 사람은 결국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특히, 방송 종료 이후에도 두 사람은 꾸준히 서로를 응

원하며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달식에도 배우자 광수 님과 함께 참석하여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가정을 이루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을 실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홀트아동복지회에 생애 첫 기부를 결정했습니다.”

방송에서 시작된 인연, 나눔으로 꽃피우다

조소영 후원자는 평소 애용하던 몽뜨허브의 조명주 대표로부터 화장품 공동구매 제안을 받았을 때, 수익금을 기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조소영 후원자의 마음에 공감한 조명주 대표 역시 함께 뜻을 모아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에 동참했습니다.

아이를 끝까지 지켜낸 미혼모는 ‘강한 존재’

간호사 출신 헬스 트레이너이자 현재 난임·임산부 산전조리원 ‘아레테랑’을 운영하는 조소영 후원자의 나눔에 대한 생각은 오랜 시간 가까이에서 마주했던 생명의 현장에서 비롯됐습니다.

“스물세 살 때부터 분만실 간호사로 일했어요. 그때 미혼모에 대한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들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끝까지 지켜내는 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 미혼모를 바라보며 그들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품은 ‘진짜 강하고 위대한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조소영 후원자. 12년간 분만실과 난임센터에서 일했던 경험이 삶의 기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로 한부모시설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



아레테랑의 조소영 대표(왼쪽)과 몽뜨허브의 조명주 대표(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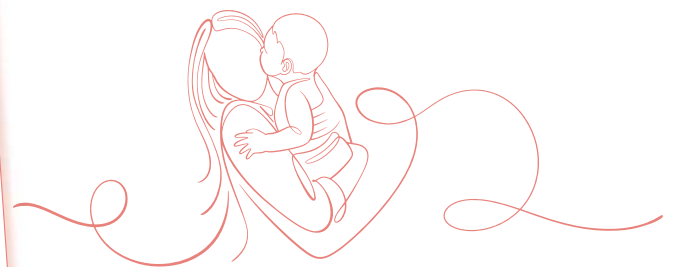
어으며, 지금도 여전히 사회의 편견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은 무언가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가족’은 사랑과 믿음의 보조배터리

조소영 후원자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족은 내가 지쳤을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조용히 에너지를 채워주는 보조배터리 같은 존재예요.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확신이 없을 때, 뒤에서 든든히 나를 받쳐주는 힘이 되어주죠”라는 조소영 후원자. “가족을 ‘엄마-아빠-자녀’라는 틀로만 정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생의 어느 순간,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지지해준 모든 존재가 가족일 수 있어요. 목사님, 선생님, 친구, 그리고 강아지까지... 내게 위로가 되었던 그 모든 존재들과 사랑을 주고받는 순간부터 가족이 되는 게 아닐까요?”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고, 그 안에서 울고 웃으며 다양한 기억을 쌓아갔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모아온 사랑의 힘으로, 이제는 나만의 가정을 지키고, 또 새롭게 사랑을 키워나가면 좋겠어요. 가족이 주는 충전의 힘은 중년에도, 노년에도 우리의 꿈을 빛나게 해줍니다.” 진심 어린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줍니다. 한부모가족과 자립준비청년의 행복을 지키는 나눔의 전도사가 되어주신 조소영·조명주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눔은 무언가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본부

2025 홀트 전국후원회 이사회 개최

4월 17일, 세종시 베어트리파크에서 2025년 전국후원회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11개 후원회 회장단이 모여 2024년 후원회 활동성과와 지난해 후원회 기금으로 진행된 대학생 자립준비청년 해외봉사활동 '드림하이' 사업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올해에도 드림하이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아 각 지역 후원회의 따뜻한 나눔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부

현대홈쇼핑, '제30회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 후원금 전달
4월 18일, 현대홈쇼핑(대표이사 한광영)과 '고양특례시장컵 제30회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현대홈쇼핑은 2008년부터 해당 대회를 꾸준히 후원하며, '장애인 체육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후원에 동참해 주신 현대홈쇼핑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부

최명신 전국후원회회장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 후원

4월 18일, 제30회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최명신 전국후원회 회장님이 참석해 전국후원회 후원금 300만원과 개인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했습니다. 중도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참여의 큰 가치를 실현하는 고양홀트휠체어농구단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최명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부

KB손해보험, 365베이비케어키트·키즈키트 후원금 전달
5월 9일, 한부모의 날(5월 10일)을 앞두고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과 미혼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성은 홍보대사와 지원을 받은 한부모도 참석해 감동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KB손해보험은 2014년부터 꾸준히 미혼한부모가족을 응원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지부

부산경남 한사랑회, 한부모가족 위해 후원금 전달

5월 10일, 부산국립과학관에서 열린 '2025년 제20회 입양의 날 기념식'에 부산경남 한사랑회가 참석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매년 입양의 날을 맞아 이어지는 이들의 꾸준한 나눔은 미혼한부모와 위기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달된 후원금은 자립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구지부

내당교회와 함께한 홀트가족사랑예배 with 박요한

5월 16일, 대구 내당교회(담임목사 김형준)에서 박요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홀트가족사랑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박요한 목사님과 서울대학교 성악과 출신의 김형준 담임목사님의 찬양은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했으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어진 박요한 목사님의 진솔한 신앙 간증은 가족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양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사이버범죄 피해예방 '더(+)' 안전한 내일!' APP 출시

지난 2024년부터 추진된 장애인의 사이버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사업을 통해 '더(+)' 안전한 내일!'을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지역주민 누구나 활용 가능한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용 앱은 개인정보 유출방지, 사실 확인, 온라인 예절 등 일상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교육영상과 게임, 퀴즈 등 총 5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일상을 위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홀트학교

함춘호 교수, 홀트학교 개교 50주년 음악회 참여

4월 18일, 홀트학교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음악회 '봄날의 선율'이 개최됐습니다. 마술쇼에서부터 소망밴드의 신나는 노래 공연까지 풍성한 무대가 펼쳐진 이날 공연은 기타리스트이자 콜텍문화재단 이사로 활동하는 서울신학대학교 실용음악과 함춘호 교수가 함께해 더욱 뜻깊은 무대가 되었습니다. 함 교수는 장애 학생 눈높이에 맞춘 진행으로 분위기를 이끌며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어버이날 맞아 2025년 지역주민 한마당 개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주민 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1부에서는 내빈 축사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기념공연과 지역주민 장기자랑, 무료 중식 제공 등이 이어졌습니다. 2부는 '추억의 시간여행'을 주제로 음악다방, 달고나 체험, 전통놀이, 교복체험, 경품 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약 470명의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주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 진행

4월 15일, '개관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 신미숙 회장, 윤택 홍보대사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기념식에서는 공로자 표창, 공모전 시상, 홀트아동복지회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이용수기 및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 복지관의 의미를 되새기고, 플리마켓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진행된 '으쓱(ESG) 페스티벌'에서는 500여 명의 지역주민이 함께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뜰

'Thanks20, Together20', 개원 20주년 기념식 개최

4월 11일,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아침뜰은 2005년 4월 11일 개원 후 현재까지 1,652명의 엄마와 아이들의 생명과 성장을 도왔습니다. 기념식에는 아침뜰과 오랜 인연을 이어오며 든든한 후원과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후원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등을 초대해 함께 걸은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와 감동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운뜰

입소자 관계개선 프로그램 실시

5월 6일, 가정의 달을 맞아 고운뜰의 엄마와 아이들이 특별한 날들이에 나섰습니다. 모두가 고대하던 뷔페 레스토랑을 방문하여 풍성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마련된 가족 외식 기회는 입소자 엄마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활발히 이끌어내어 서로 단합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고운뜰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한 달로 기억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아름뜰

가족 행복한 제주여행

5월 7~9일 2박 3일간, 아름뜰 가족들이 제주도로 특별한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르른 곳자왓을 거닐며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동물원에서는 동물을 만나고, 테마파크에서는 다채로운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와 즐거움을 만끽한 이번 여행은 아름뜰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대구클로버

생활실 환경개선사업 실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대구 신세계의 후원으로 5층 생활실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시설 유형 변경 후 11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사업으로 거실 벽지는 깨끗하게, 어두웠던 거실등은 더욱 환하게 교체되었습니다. 또한 오래된 주방 싱크대와 샤워실도 새롭게 바뀌었으며, 쾌적한 환경으로 변한 생활실의 모습에 입소자들 모두 크게 만족했습니다.



대전클로버

자녀 성장앨범 <너의 열두 달> 촬영 지원

5월 12일, 한부모가족 자녀의 성장을 축하하는 <너의 열두 달> 성장앨범 촬영과 돌잔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열두 달 동안 건강하게 자란 자녀의 모습을 기록하고 추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들은 가족사진 한 장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아, 이번 성장앨범 촬영은 가족사진을 남기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와의 유대감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광주클로버

광주클로버 한부모가족의 날 퇴소자 자조모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기념해 '다시 이어지는 우리, 클로버 링!'이라는 주제로 퇴소자 자조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퇴소자와 입소자 가족이 함께 참여한 이번 모임에서는 밀피유나베 요리 체험과 패밀리레스토랑에서의 뷔페 식사를 통해 따뜻한 교류와 정서적 유대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퇴소 후에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상호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눔은 함께할수록 커집니다

- 국내후원** 위기가정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한부모가족과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등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 해외후원** 해외취약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다양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외 4개국 4개 해외사업장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결연후원** 향기 나는 결연 '허브'를 통해 국내·외 아동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과 교육 기회를 지원합니다.
- 고액후원** 다양한 기부활동과 봉사료 이웃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고액후원자 모임 '탑리더스'가 되어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합니다.
- 기업후원**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협력사업(수익 기부, 지원사업 공동기획, 임직원·고객 참여 캠페인, 공익연계 마케팅)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합니다.
- 교회후원**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홀트아동복지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교회가 이웃과 아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갑니다.
- 특별한 후원** 생일, 첫돌, 결혼, 취업, 출산, 팬덤 등 특별하고 소중한 날에 나눔을 실천하는 기념일 캠페인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후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선인장 텀블러

홀로 서야 할 자립준비청년에게 기댈 어른이 되어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



위기가정지원 캠페인

텅 빈 집에 홀로 남게 된 초원이의 하루



↑ 카메라로 스캔하여 캠페인 확인하기



세상의 모든 순간, 캐논으로 완성하다

찰나의 감동, 선명한 기록

